영화인의 꿈을 청소년이여 도전하라 !

전주시, 촬영현장 견학 · 문화행사 체험

전주시가 감독 등 영화인의 꿈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시는 (사)전주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정병각) 주관으로 19일과 20일 이틀간 지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화촬영 현장 견학 및 영화문화행사 체험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이 지난 2014년 체결한 진로직업체험 업무협정의 일환으로, 전주영상위원회는 상반기 2회와 하반기 2회 각각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상반기 체험행사에서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오송중 외 3개 학교 215여명의 학생들이 참여, 영화영상 직업군 체험을 통해 직업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참여 학생들은 영화배우 김남길·천우희 주연의 영화 '마이엔젤' 세트 촬영시설을 둘러본 후, 영화진로체험으로 영화분장사와 영화쉐프(밥차), 영화촬영감독체험 및 영화퀴즈, 영화관토마임을 통한 연기체험 등 다채로운 영화문화를 체험했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유체험으로 전주 등 전북에서 촬영된 영화를 전시한 '로케이션 사진전'을 감상하고, 각 영화에 출연한 배우 의상 및 실제 영화에서 사용 된 소품 체험 및 레드카펫 포토존 등 다양한 견학체험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학생들이 평소 영상미디어로만 접하던 영화관련 정보들을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실제 견학 체험함으로써, 영화관련 연예정보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홍동욱 전주시 영화영상산업과장은 "전주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올해부터 시행된 자유학기제와도 연계하여 다양한 영화관련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참여 학생들은 영화촬영감독체험 등 다채로운 영화문화를 체험했다.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기탈출 체험교육

전주시는 20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기탈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관내 129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40여명을 대상으로 20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에서 실시된다.

119안전체험관에서는 안전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개개인이 건물탈출과 고공횡단, 화재진압 등 사고 상황별 안전사고 대응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제 사고 발생 시 종사자들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체험을 구성해 더욱 의미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양영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시민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전주시학교밖지원센터 벤치마킹

전주시와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의 사업지로 지정받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주YWCA 위탁)에 지난 1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총 13명(의원 6명, 사무국장·전문위원·수행직원 등 7명)이 방문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존재하는 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에서 어떻게 단절된 또래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지, 부모교육도 이루어지는지, 두드림 등의 집단프로그램이 자립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 심층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봉환 주민도시위원장은 "부산 금정구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가 4월에 제정돼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먼저 시작한 전주시와 전주시학교밖지원센터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 및 사업, 우수사례 공유로 금정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여성가족부와 전주시로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 받은 지 1년 된 시점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방문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 전주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해 더더욱 힘쓰라는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녹색연합,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행사 개최

녹색연합은 지난 21일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을 맞아 새만금 등 전국 6개 지역의 강에서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했다.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World Fish Migration Day)'은 열린 강과 이동하는(회유성) 물고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열리는 축제다.

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을 맞아 새만금유역 등 전북지역 하천에 설치된 보와 댐 등 인공구조물을 조사한 결과 새만금방조제 등 1979여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새만금유역의 인공구조물들이 회유성 어종과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특히 새만금개발로 인한 방조제 건설은 강과 바다를 오가는 회유성 어종의 절멸은 물론 바다와 하구기수역을 오가는 황복과 전어, 망둑어 등 수많은 어종과 하구기수역에서 산란하고 성장하는 어종의 감소를 불러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 /김영재기자

평화보건지소, 장애인 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보건소(김경숙 소장) 평화보건지소에서는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재활웃음·원예치료, 행복노래교실, 작업치료 및 체조교실, 평화 해피시네마 등 이다.

이날 참여한 장애인들은 노래 전문 강사와 함께 발성 및 호흡법, 실제 노래 연습 등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운동실, 구강보건실, 예방접종실, 만성질환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길 바란다"며 "장애로 인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잠시나마 잊고 자신감을 되찾길 희망한다" 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장수군청 민원과, 농촌일손돕기 전개

장수군청 민원과는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20일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했다. 이날 장종현 과장과 직원 등 10여명은 백형엽(장수읍 안양마을)농가를 찾아 3ha 규모 사과밭에서 사과적과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장수=고판호 기자

일일선실천국민운동본부, 5월의 자랑스런 청소년 선발

김다연 손성규 이은샘

사)일일선실천국민운동본부(이사장 이상익)는 5월의 자랑스러운 청소년으로 김다연(익산 한별초 3·사진), 손성규(부안 행안초 5·사진), 이은샘(완주 용진초 5·사진) 등 3명을 선발하고 상패와 상품을 전달했다.

이들 어린이들은 매일 생각하고 실천하는 착한 일들을 일일선 기록장에 바르게 정리하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청소년들로써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했다.

일일선실천국민운동본부는 2010년부터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어린이 인성교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일일선 기록장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상익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일일선을 통한 인성함양 운동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다"면서 "사회와 학교 가정에서 일일선 실천 운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주거환경 개선 봉사

전주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가 재능봉사를 펼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20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도회장 전기환) 회원 30여명과 함께 ㈜중흥건설의 지원을 받아 총 12세대가 거주하는 소규모 영세노후 연립에서 '더불어 함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협력의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가 지난 3월 열린 정례협의회에서 해당 연립주택이 개보수시 법이나 조례를 통해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재능나눔 상생협력 봉사활동을 추진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

이날 개보수 공사에 참여한 ㈜중흥건설은 건물 외벽도색과 옥상방수공사를 지원했다.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에서는 주택관리사인 회원 30여명이 건물 안전점검과 공용부분의 전기시설 및 각 세대내 전기콘센트 교체, 기타설비 등의 시설물 보수를 시행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가정의 달 어르신 찾아 봉사활동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0일 인후2동 소재 동현교회에서 지역 어르신 및 소외계층 300여명을 초대해 점심식사 대접 및 문화공연, 전문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한 육개장과 인후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육대수)에서 준비한 떡과 과일 등을 대접했다.

또한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이동봉사팀'(푸드봉사: 서금요법, 이혈요법, 이미용)과 인후2동 자생단체 100여명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겼다.

엄익준 인후2동장은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건강 하시라고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자원봉사센터와 인후2동 자생단체 회원들께 고맙다"며 "항상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 편안한 인후2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익산 용안면 기독교 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익산시 용안면 기독교 연합회(회장 최영철 목사)가 최근 용안면사무소를 방문,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증에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용안면 기독교 연합회는 매년 부활절 행사시 모금된 성금으로 의미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실천으로 3년째 성금을 기증해오고 있다.

용안면은 기부받은 1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10세대를 선정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진안안천면, 취약층 사랑의 집수리

진안군 안천면(면장 유철호)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일부터 안천면 주민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단과 협력하여 사랑의 집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집수리 대상자는 집중 사례관리 대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82)로 나눔과 희망 집 고쳐주기 사업단과 안천면 자원봉사단(범띠 모임 4인), 진안군 사례관리팀과 사회복지협의회가 힘을 모았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범띠 모임 자원봉사단 4인은 안천 율현마을 이장을 주축으로 안천면으로 귀농하여 건축 및 전기 전문기술을 가진 동갑 친구들로 구성되었으며, 집 내외부 단열을 위한 전면 개보수 및 노후 된 전기배선 보수, 주방 교체, 화장실 설치 등을 지원하기 하기 위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부 음

정대영(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씨 **모친상**, 빈소 :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2층 천실, 발인 : 23일(월)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중앙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010-964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효자지사 010-8645-9935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